

무등산 평촌마을 3중규제...해제 약속해놓고...

2013년 명품마을 지정...그린벨트·자연공원·문화재법 족쇄 북구·주민 그린벨트 해제 요구...정부 3년째 '묵묵부답'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한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이 마을은 지난 2013년 전국에서 10번째이자 광주·전남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평촌마을에는 무지갯빛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반딧불이가 살고, 수달이 서식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떠나는 마을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국립공원 지정 3년이 흘렀지만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실망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삼중규제'가 마을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마을 평촌마을 주민들이 '삼중규

제'가 마을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전에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평촌마을 주민들과 북구청에 따르면 평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24일 북구 규제개혁팀에 '무등산 국립공원 평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서'를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정태원 통장은 "도립공원이었던 무등산을 국립공원화하는데 필요한 구역 확장 때 주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해

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당시 국립공원 편입을 반대했다.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까지 더해지면 마을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마을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3년이 흐른 현재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주택을 신축하려고 해도 자연공원법에 걸리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국립공원 내 논밭이라는 이유로 대출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삼중규제'는 명품마을 지정 이후 평촌마을을 무등산권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해 개발 민박과 판매시설, 주차장 등 공간을 갖추려고 하지만 각종

규제가 옥죄고 있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마을 주변 자연환경 보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북구와 광주시도 이 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행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1년째 묵묵부답이다. 행정부가 전국 광역단체를 돌며 진행하는 끝장 토론회의 광주지역 안건으로 제출해 놓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평촌마을 주민들은 신규 소득 창출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지 못할 정도로 최소한의 생활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과도한 다중규제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구내식당 불공정계약 법원 "운영업체 배상하라"

전남대 구내식당 임대료를 지나치게 낮게 계약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운영업체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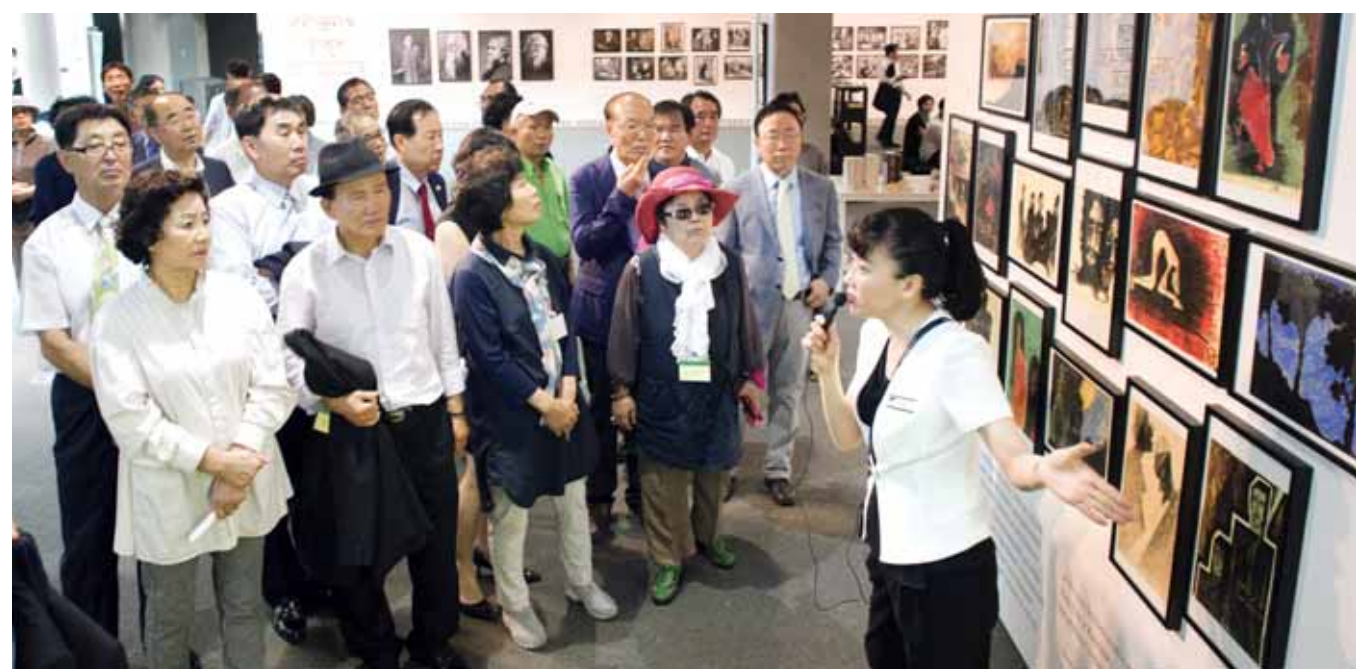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전남대가 생활관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전남대에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대는 2006년 생활관 건립을 위해 A사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생활관 소유권은 전남대가, 운영권은 A사가 갖기로 했다. 운영권이 있는 A사는 생활관 지하에 구내식당을, 지상에는 은행·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전남대와 배분하기로 했다.

A사는 2008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B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후 매년 수익금으로 2억2000만~3억2000만원을 전남대에 지급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A사가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불공정하게 선정해 임대료와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거나, 제출받은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입찰인을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사가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최소 임대료를 받는 부담계약을 체결, 정당한 수익을 분배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예향인사들 문화전당 둘러보기

29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4회 돌아오고 싶은 광주, 예향인사 초청회'에 참가한 전국호남향우회 중앙회와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대표 총재 임향순) 회원들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화순·나주·장성·담양 고교 공동학군제 검토"

장휘국 광주교육감 전반기 기자회견... "누리에산은 국가 책임"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광주·화순 간고교 공동학군제'와 관련, 화순을 비롯해 나주·장성·담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공동학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현될 시 여부를 놓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직선 교육감 2기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공동학군제와 관련, "광주·전남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찾는 취지

에서 연구해야 한다"면서 "광주 인근의 나주혁신도시나 장성, 담양도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화순군·전남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화순·광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함한 공동학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당장,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애초 광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포괄적 공동학군제 성사를 위해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순 인구 유출 뿐 아니라 광주로의 유입에 따른 해당 지역 공동화와 광주 교육 여건의 변화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 교육감은 아울러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 국가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19:51, 달돋이 01:46, 달질 15:13

더위 식히는 소나기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2/28	보성	구름많음	20/26
목포	구름많음	21/28	순천	구름많음	21/27
여수	구름많음	21/25	영광	구름많음	21/28
나주	구름많음	21/28	진도	구름많음	21/27
완도	구름많음	21/27	전주	구름많음	21/29
구례	구름많고한때비	20/21	군산	구름많음	21/28
강진	구름많음	21/28	남원	구름많고한때비	21/28
해남	구름많음	21/28	홍산도	구름많음	21/24
장성	구름많음	20/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남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해	안바다(동)	남~남서	0.5~1.0	남서	0.5~1.0
서부	안바다(서)	남~남서	1.0~1.5	남서	1.0~1.5
남해	안바다(서)	남~남서	1.0~1.5	남서	1.0~1.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시간 날씨

7/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	☁	☁	☁	☁	☁	☁
23/26	22/27	22/27	22/28	22/28	22/28	22/28

18년전 침몰선 구난신고 해프닝

신고업체 철제코일 '눈독'...구난 맞지만 소유권은 불인정

부산의 한 선박업체가 18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외국 화물선을 인양 하겠다는 신고를 여수해경에 접수했다. 선박에 실린 1700t의 철제코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부산의 한 선박 업체가 1998년 침몰한 파나마 국적의 7686t 규모 화물선 하카타호를 인양하겠다는 구난작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하카타호에 실린 철제코일 1700t을 건져 올린 후 팔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하카타호 구조활동이 끝난 지 18년이 지나고, 싱가포르에 있는 선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는 등 이 화물선과 무관한 제3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법제처에 범형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화물선을 인양하겠다는 행위는 구난에 해당하고, 조난사고 발생 후 상당 기간 방치된 선박도 구난

작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장구조법에는 구조된 선박 등이 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소유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인계한다고 규정돼 있다. 업체가 하카타호를 인양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없이 선박이나 물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해경은 법제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난 23일 업체에 구난작업, 즉 하카타호 인양 후 선박과 실린 물품 인계 계획을 세우라고 보완요청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가 보완신고를 제출하면 외교적 통로를 거쳐 침몰선의 소유주와 인양 후 처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카타호는 1998년 인천항에서 출항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이튿날 벨리국적의 화물선 아무르호와 충돌, 여수 삼백도 남쪽 14.5km 해상에 침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범칙 112·제안 119·민원 110 7월부터 긴급 구조전화 통합

다음 달부터 21개 신고전화를 119(재난)와 112(범칙), 110(민원상담)으로 통

합한 서비스가 시범 개통된다. 국민안전처는 7월1일부터 광주와 전남, 제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7월15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10월 말부터는 전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OPEN!!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조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발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초무침
*다슬기 영양 들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을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encore 호텔
RAMADA JEONJU @e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